

아이브 세계관

	내용
본문	<p>"민주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데모크랫(민주팬클럽)을 만들어야 합니다."</p> <p>아이브는 역대 5대기획사 걸그룹 중 대중성과 팬덤 동원력을 모두 잡은 케이스이자 에스퍼, 현진스, 르세라, 없지 등의 그룹들과 함께 같은 세대에 데뷔를 했지만 압도적인 실력과 인기로 인해 데뷔 이래로 걸그룹의 서열을 따지자면 1등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룹이다. 그 중 리더인 민주가 큰 주축이 되어 멤버들을 이끌어 나갔다.</p> <p>데뷔 초창기부터 아이브 멤버들의 언행, 언어 선택등이 모두 이슈가 되어버린다. 그 중 하나가 민주가 W라디오 라이브 방송에서의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장이 11주 연속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1등을 계속 했다.</p> <p>시간이 지나도 아이브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p> <p>아이브 팬클럽의 규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고, 그 들은 팬클럽의 세력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이른바 종교집단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였다.</p> <p>광팬? 아니 언뜻보기엔 평범한 느낌의 열렬한 팬심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광신도?로 보아도 무색할 정도인 그들은 항상 '나의 생명은 아름다운 갤럭시 작가, 장르로는 판타지, 내일 내게 열리는 건 큰 스테이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이브의 모습'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p> <p>그러던 어느 날, 아이브의 리더인 민주는 지쳐있었고 돌연 잠정은퇴를 해버렸다. 데모크랫을 포함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난 사태가 되어버렸다. 민주가 없는 아이브의 나머지 멤버들은 방송적으로는 조금씩 모습을 비추었지만 음악적으로는 활동을 하지는 않아 사실상 활동 잠복기에 있었다.</p> <p>사람들은 몇 달 동안 민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생팬들로 인하여 민주는 본인의 스트레스가 활동을 중지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자 소속사에 공식</p>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인터뷰에서 첫마디가 ‘저는 잘 살아요 제 걱정은 낭비에요.’ 였고
--	---

	<p>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오해가 많은 저와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나’이니깐요’ 라며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말로, 단 한번의 인터뷰를 통하여 갑작스레 은퇴선언을 하여 욕을 하는 대중들을 잠재웠다. 대신, 다음 활동이 마지막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p> <p>민주가 돌아옴으로써 소속사에서는 아이브의 컴백 무대를 속전속결로 진행시켰다. 마지막에 활동했던 것이 청순 컨셉이기 때문에 걸 크러쉬 컨셉으로 트렌드를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기존의 걸 크러쉬 하면 떠오르는 파워풀한 컨셉이 아닌 소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거기에 자기애라는 이미지를 곁들인 색다른 컨셉을 확정시켜 나갔다.</p> <p>컴백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 앨범만으로 모든 시상식 및 뮤직 어워드 등에서 대상만 60개를 얻으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마지막 무대는 민주의 나라에서 가장 큰 채널인 BBS(Blue Broadcasting System) 채널에서 메인을 맡았지만 모든 방송국들에서도 동시 송출을 하게끔 막대한 돈이 들어왔고, 위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같이 랜드마크를 이루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BBS방송국 꼭대기에 헬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p> <p>그렇게 당일날,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도 응당 있기 마련, 아이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BBS방송국에 대기하여 마지막 무대를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들의 계락을 알고 온 아이브의 광신도들도 찾아왔지만 불필요한 과잉보호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뿐이다. 민주의, 아이브의 마지막 무대를 무사히 마치고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인가.</p>
비고	